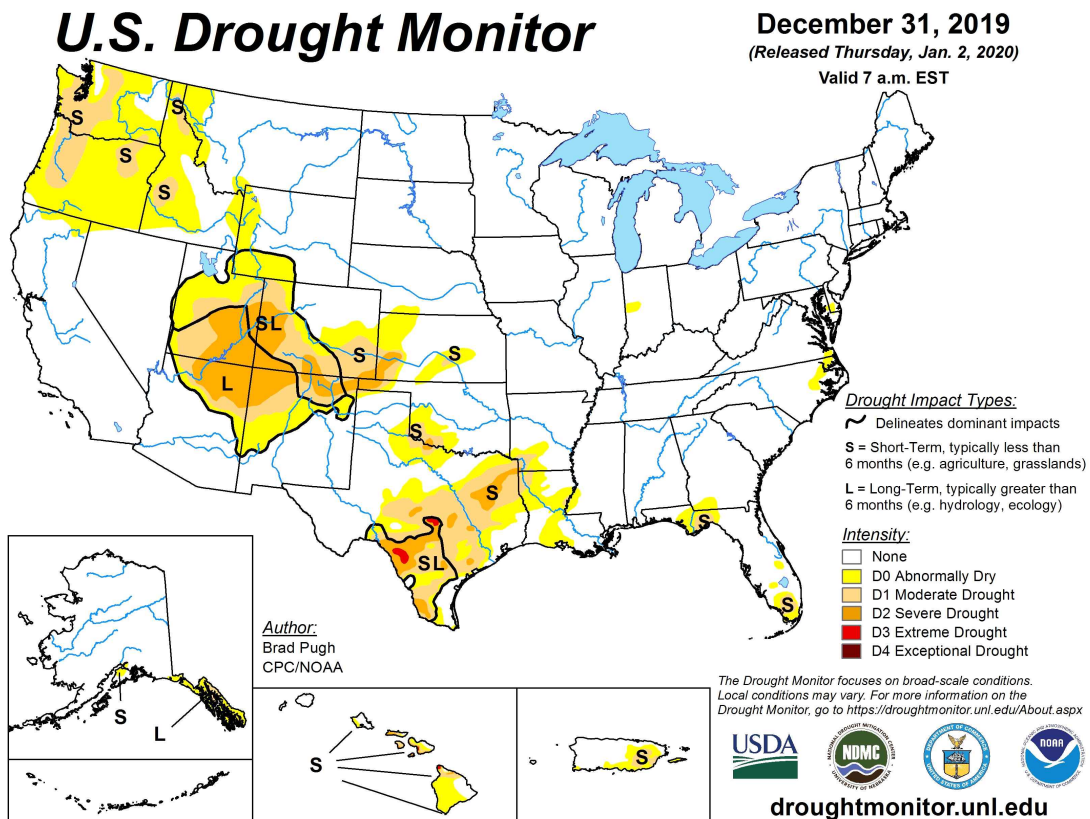


12월 3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92)

□ 미국 기후 현황(12/22~12/28)

이번 주는 동남부에 비를 뿌린 인상적인 폭풍 전선으로부터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남서부, 중앙 평원을 지나간 또 다른 큰 폭풍으로 끝났다. 반면에 북동부, 텍사스 남쪽 절반, 고원 북부는 온화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반면에 평원에서부터 동쪽으로 현저한 온난화가 발생하여 로키 산맥과 애팔래치안 산맥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10-20° F 높았다. 그러나 남캘리포니아에서는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최대 5° F 낮았다. 중서부는 며칠 동안은 개운한 날씨였지만 주 후반에 광범위하게 비와 눈을 내린 폭풍이 오면서 야외 작업을 할 기회가 끝나버렸다. 게다가 미네소타, 남북다코타, 위스콘신 북부 절반에서는 한 달 내내 넓은 면적에 내린 잔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평원의 중부와 남부 걸쳐서 12월말 불어온 폭풍우는 지역의 가뭄을 해소해주었다. 하지만 텍사스 남쪽 절반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어떤 지역들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또한 상당량의 강수가 북서부를 우회했다. 워싱턴, 오레곤, 아이다호를 지나는 이곳 대부분의 강 유역에 형성된 설피빙원은 낮은 12월 평균치의 25-75 %의 범위에 있었다. 상당량의 비가 그리고 높은 고도에 서는 눈이, 특히 이번 주 하반기에 캘리포니아의 남부와 남서부 전역을 휩쓸었다.



□ 세계 기후 현황(12/22~12/28)

■ 유럽: 이 기간 초기에 푹썩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폭풍우가 겨울 작물에게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수분을 유지해주었다. 폭풍 전선 하나가 주초에 스페인 남부 (강우 없었음)와 북동 및 남동 유럽에 있는 몇몇 농경지 (5 mm 미만)를 제외하고는 유럽 대륙의 많은 곳에 총량 5-50 mm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의 중대형 강우를 광범위하게 뿌려주었다. 대부분의 경작지에 내린 가을비의 총량은 평년 수준에 육박했고 서유럽의 어떤 지역들에는 평년의 200 % 이상이 내리기도 했다. 중앙 폴란드, 북세르비아, 아래쪽 다뉴브강 계곡에서 몇 개의 건조 포켓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휴면 중 (북쪽)이거나 반휴면 중 (서쪽)인 겨울 작물들의 수분 보유량은 계속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서양에서 온화한 바닷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대륙 전체에서 다시 한 주 평년보다 2-5° C 높은 기온을 유지했고 발칸 반도는 평년보다 최대 8° C 높았다. 이상 온난화로 겨울 작물들의 내한성이 줄어들었고 농경지는 보호해주는 눈 덮임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

■ 호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 면화, 수수, 기타 여름작물들의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이 계속 불량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나기 (10-25 mm 또는 그 이상)가 대체로 경계면에 있는 가장 동쪽의 경작지에만 내렸다. 게다가, 기온은 섭씨 높은 30도대에서 낮은 40도대에 있어서 여름작물의 발달 속도를 가속화하였고 증발 손실량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밖에 남호주는 건조한 날씨로 마지막 남은 겨울 작물 수확을 촉진한 한편 서부 일부에는 지나가는 소나기 (10-25 mm)가 내려서 지역의 야외 작업을 일시 정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 아르헨티나: 남부의 많은 농경지대는 소나기가 적기에 내려서 여름작물 파종에 필요한 수분량을 상승시켜주었다. 라 팜파 북부에서부터 9월초부터 평년보다 건조한 경향을 보여 왔던 여러 장소들을 포함하여 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지나기까지 총 10-50 mm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 지역의 남서쪽 일부는 보다 건조한 날씨 (총 강수량이 10 mm 미만)가 계속 되었고 뜨거운 날씨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또는 높은 섭씨 30도대)가 며칠간 더해지면서 증발 손실량이 계속 높았다. 먼 북쪽은 대체로 소나기가 드문드문 가볍게 내렸고 단지 몇 지역만 25 mm 이상의 수치를 보였을 뿐이었다. 북동쪽 면화 벨트 (산타 페 북부에서부터 포르모사 동부까지)는 날씨가 비교적 좀더 건조해서 늦은 단계의 면화 파종을 재개하는데 도움을 될 것이고 지난 주에 강한 비가 내린 이후라서 초기 영양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서부터 코리엔테스와, 차코와 포르모사의 동쪽 구역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이거나 평년보다 낮았고 서쪽 농경지대는 평년보다 최대 4° C 높았다. 며칠 동안 이곳의 낮 최고 기온은 높은 30도대에서 낮은 40도대까지 올라갔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26일 현재 옥수수과 콩은 각각 77 및 80 % 파종되었고, 면화는 95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작년 속도 (77 %)보다 다소 앞서서 82 % 수확되었다.

■ 브라질: 중부 및 남동부의 많은 농경지대에 유익한 비가 내려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양호 조건들이 유지되었으나 남쪽에는 다시 건조 포켓이 형성되었다.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동쪽으로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총 강수량은 25-50 mm 이상이였다. 이 수분은 사탕수수, 커피 기타 작물들을 포함하여 생식생장기부터 종실비대기 사이에 있는 콩과 1차 파종 옥수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여름 더위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낮은 또는 중간 30도대)로 작물의 수분 수요량은 여전히 높았지만 작물의 성장 속도는 계속 높았다.



하지만 먼 남쪽은 지난 주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에 날씨가 다시 좀 더 건조해져서 파라나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 mm 미만이었다. 건조와 함께 계절을 벗어난 더위가 찾아와서 낮 최고 기온이 지점에 따라 40° C까지 올라가서 여름작물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면 비와 기온이 다시 계절에 맞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2월 26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 옥수수 수와 콩이 각각 92 및 94 % 파종되었고 옥수수의 70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하였고 콩은 9 % 개화되었다. 한편, 서바이하와 북고이아스에서부터 북쪽으로 마란하오를 지나기까지 평년보다 더 따뜻하고 더 건조한 조건들 (강우 총량이 10-25 mm, 낮 최고 기온이 40° C까지 도달)이 계속되어 미성숙한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더욱 제한하고 있었다.